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7.40원 하락한 1,187.80원에 마감

4일 달러-원 환율은 연준의 선제적인 금리인하(50bp)에 따른 달러약세에 전 거래일 대비 7.40원 하락한 1,187.8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187.0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이후 환율은 미 연준의 50bp금리인하에 따른 달러약세를 반영하며 1,183.9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그러나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경계 및 저가매수에 하단이 지지되며 1,184 ~ 1188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1,187.8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186.4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05.05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87.00	1189.00	1183.90	1187.80	1186.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09.96	1109.96	1100.96	1107.23

금일 전망

연준發 주요국 금리인하 이어지나 ... 1,180원 중반 중심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연준의 금리인하로부터 비롯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기대를 반영하며 1,180원 중반 중심 등락이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87.80원) 대비 2.25원 하락한 1,185.2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전일 연준의 50bp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연준과 동일하게 금리를 50bp 인하하였으며, S&P에 따르면 ECB도 유로존 성장 둔화에 따라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또한 일본 및 영국의 중앙은행도 부양정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상의 주요국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기대로 투심이 일부 회복되며 환율은 소폭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펀더멘탈 약화 및 저가매수는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83.00 ~ 1188.50 원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505.55억원

체크포인트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25원 ↓
	■ 美 다우지수 : 27090.86, +1173.45p(+4.5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7.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321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